Q.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1000자)

늘 나오는 항목.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택한 이유를 “차”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산업이 기존의 메이커(벤츠, BMW)들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과 테슬라와 같은 IT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흐름. 이에 비추었을 때 내가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면 단지 “차”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갈지 잘 고민해야 할 것.  
  
그리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단순하게 내 생각만 풀어가면 붕 뜬 이야기가 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기준을 이야기 할 때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 혹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대게 이야기 하는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풀어내면 수 많은 사람들의 “드립”중 하나가 되지만 내가 그 생각 혹은 가치관을 갖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나 사건을 경험을 통해 풀어나간다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될 것.  
  
인재상에 대한 적합성을 보고 대기업 입장에서 **친기업적인 정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관건. 많은 자동차 회사 중 왜 현대자동차를 선택했는지, 회사가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지원한다고 쓰는 것은 금물.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다른 업계나 경쟁사보다도 이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감성적인 지원동기와 직업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므로 지양해야 함.  
  
또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1차원적 직업관 제시는 금물이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경험**, 왜 자신의 역량이 여기서 발휘되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큰지를 강조하면 적극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

-> 다양한 IT 기술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회사